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학 시절 어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배가 난파되었는데 하나뿐인 구명보트는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배우자·아들·나 이렇게 네 명이 남았습니다. 누구를 구명보트에 태우겠습니까?” 많은 의견이 다양한 이유와 함께 나왔다. 심지어 “아무도 타지 말고 온 가족이 같이 죽자”라는 주장까지.

10여 년 전 국내 노회사가 의료 수준과 장비가 극도로 열악한 나라에 혈액투석기 2대와 관련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혈액 투석이 낫선 그 나라 의사들에게 의료 기술 전수를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투석기가 2대밖에 없는 그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씩 평생 투석을 해야 하는 말기신장병 환자 대신 1-2주 정도만 투석으로 버티려면 콩팥 기능이 회복되어 살아날 수 있는 급성신손상 환자께만 투석 치료를 하고 있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여자책이었던 셈이다.

전방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량 전상자 분류는 의무부대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였다. 전쟁

누가 먼저?

으로 많은 병사가 다치거나 죽은 상황에서 군의관과 위생병은 전장을 누비며 환자들에게 빨강, 노랑, 초록, 검정 표식을 달아줬다. 빨간색은 빨리 치료하면 살 수 있지만 위중한 경우, 노란색은 위독하진 않으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 초록색은 가벼운 부상, 그리고 검은 색은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어렵거나 이미 사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우선순위 표식을 보고 환자를 후방으로 옮겨서 치료하는데, 이러한 중증도에 따른 치료 우선순위 분류법을 ‘선별’을 의미하는 ‘트리아지’ (Triage)라고 부른다. 트리아지는 1797년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 군의관이던 도미니크 장 라레가 전쟁터 부상병을 치료 가능한 곳으로 빨리 수송하기 위해 ‘나는 앰블런스’ (Ambulance volante)라는 이름을 가진 마차 형태의 운송 수단과 함께 처음 도입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이 앰블런스는 비록 날 수는 없었지만 날 듯이 빨리 후방으로 환자를 옮긴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응급실과 재난 현장에서 트리아지 분류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행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의료 장비, 침상, 인력이 바닥난 나라 의사들은 끔찍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누구에게 인공호흡기와 중환자실을 우선 배분할 것인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 환자도 넘쳐나던 일부 병원에서는 실제로 나이가 많거나 아주 위중한 환자는 인공호흡기 대신 산소만 공급받기도 하였다.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

다면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중환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 한계로 모든 환자에게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가 있다. 이때는 생존 가능성이 큰 환자에게 치료를 집중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택적 의료 배급’ (rationing care)을 채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평소 생명 존중을 최상의 가치로 삼던 의사들이다 보니 살릴 자와 죽을 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란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다. 희생 가망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쏟을 시간·인력·장비를, 살릴 수 있는 환자에게 더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구명’,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라는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주장한 공리주의의 재난 버전이라고나 할까.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누가 먼저 맞을 것인가? 어떤 백신이 내게 돌아올 것인가? 관심이 많고 말도 무성하다. 백신 접종 순서는 희생자를 최소화하면서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방향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백신 접종 순위에 빨강·노랑·초록 표식은 있어서도 검정 표식은 없으며, 전국민에게 돌아갈 충분한 양이 확보되었다고 한다. 내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빠짐없이 맞는 일만 남았다.

종교칼럼

‘레깅스 디스토피아’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젊은 여자들이 입는 바지는 기본적으로 몸에 꼭 끼는 스타일이고, 레깅스도 심심찮게 보인다. 산속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들이라 무척 신선하다. 그러나 처음의 신선함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빛바래고 무덤덤해졌다.

하긴 코로나19 때문에 무등산 등산로에서도 레깅스 차림의 젊은 여성들을 심심찮게 만나곤 한다. 맞은편에서 오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앞서가는 경우엔 조금 난감하다. 이런 경우엔 추월하는 것으로 어색한 상황을 넘기곤 한다. 그런데 요즘 일부 젊은 남자들은 레깅스 입은 또래 여성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 ‘인간의 DNA가 불과 몇 십 년 만에 변하기라도 한건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반나절을 지내보니 저절로 수긍된다.

그러나 곧 생각을 고쳐 먹었다. 등산길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을 뒤따라 가는 것은 길거리에서 레깅스 여인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굳이 비교하자면 지하철 맞은 편 자리에 레깅스 입은 여성이 앉아 있는 경우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역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요즘 지하철 승객들은 맞은 편에 누가 앉았는지 전혀 관심 없다. 한결같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미리 서로 짜고 몰래 카메라라도 찍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하철 내부 풍경은 일관적으로 작위적 이어서 한편의 행위예술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예전의 일상적인 지하철 풍경이었던 눈고조는 적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당연히 맞은편에 레깅스

여인이 앉든 말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다.

서울은 스마트폰에 점령당했다. 암울한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SF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멋진 신세계’ 류의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세련된 ‘1984’ 류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SF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 21세기가 말로 흥, 칸트, 혹은 니체 같은 철학자가 등장하여 스마트폰으로부터 인간 정신을 탈환하여야 하나, 우리 주변엔 인문학을 사교하는 장사치들 밖에 없다. 이천년 이상을 인류와 함께 한 불교 역시 기록 신앙과 명상 비지니스의 협공으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21세기 인류에게 미래를 제시한 것은 ‘공각기동대’ ‘블레이드 러너’ 같은 20세기의 SF영화였다. 이들이 제시한 미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한때 인간은 신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였다. 그 후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굳이 철학과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듯하다가, 이제 인간은 영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가공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보고 이해한다. 이들은 현대판 신화이다. 첨단 기술을 등에 업은 현대판 신화의 현란한 상상력이 치밀하고 끈질긴 사색과 통찰을 가볍게 지르밟고 있다.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레깅스 차림의 늘씬한 여인보다 손바닥 만한 화면 속의 세시한 여성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와 지난 며칠을 돌이켜 보니 SF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 레깅스가 내게 보여 준 디스토피아는 애써 모른 채 지나치기를 바랐던 우리 시대의 진실이었다.

기고

보라색 다리 건너 ‘퍼플섬’



이승미 신안군 예술감독 행촌문화재단 대표이사

“나는 마침내 대기의 진정한 색을 발견했다. 그것은 보라색이다. 신선한 공기는 보라색이다. 앞으로 3년 뒤에는 모두가 보라색으로 작업할 것이다.” (클로드 모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알려진 예술가. 그들이 비로소 예술적 자유를 누리게 된 시기, 스스로 그리고 싶은 대상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색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때, 이른바 색채의 혁명의 시기는 인상파의 등장으로부터이다. 인상파 화가들은 밝고 찬란한 대기의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하던 중후하고 안정감 있는 회색 톤을 과감하게 벗어났다. 심지어 금기시하던 검은색과 흰색을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흰색의 화사한 그림자로 회색이 아닌 청색과 보라색을 즐겨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술 작품은 인상파 시대 이전에는 주로 왕실·귀족·자본가 등 주문자의 요구에 의한 주문 생산이 대부분이었다.

예술가들은 스승과 제자들로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주문 작품에는 당연히 한 묶음의

요구 자료에 따라오기 마련이다. 결국, 자유로운 예술가의 예술혼을 안정된 수입과 바꾼 셈이다. 자유의 대가는 당시에도 비싼 값이 필요했다. 왕과 귀족의 초상화나 성당의 성화 제작은 모두 엄격한 제작 기준이 있어서 주문을 받은 예술가 집단은 기준과 도상의 상정을 충실하게 따라야만 했다.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이다. 그중 특히 보라색은 황제의 색으로 왕가나 교황청에서나 쓸 수 있는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안료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값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보라색이 아닌 붉은색으로 대체해야만 할 정도였다.

순탄치 않은 대선 과정을 거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보라색이 화제를 모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가자는 의미를 강조하며 그 의미 전달을 위해 민주당의 상징인 파랑색, 공화당의 상징인 빨강색을 섞은 보라색을 바이든 캠프의 상징색으로 활용해 왔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통합’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의 보라색 의상을 입고 참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보라색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원할 때 끌리게 되는 색으로 알려져 있다. 심신이 피로할 때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색이며, 숭고하고 신비로운 색으로 보았다. 실제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시기에는 유난히 보라색을 선호하게 된다는지, 몸이 허약하거나 병약한 사람들도 보라

색에 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신안군의 보라색도 화제다. 신안군에서는 수년전부터 1004라는 숫자와 ‘보라색’ 마케팅을 해왔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벗어나 압해대교로 들어서는 순간 1004섬 로고와 보라색이 보인다. 신안의 버스정류장은 모두 흰색과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다.

신안의 보라색의 결정판은 ‘퍼플섬’이다. 안좌도에서 온 달을 듯이 보이는 반월·박지도까지 놓인 다리가 보라색인 것은 물론이고 마을로 진입하는 집집의 지붕과 창문, 마을 사람들의 의상 심지어 동네 개와 고양이 목줄까지도 보라색이다. 게다가 방문객들이 웃이나 우산 스킨 등 보라색 장신구를 착용하면 입장료가 무료이다.

한때는 황제가 아닌 자가 보라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나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고 보라색 장신구도 장식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어진 것이다. 게다가 푸른 바다 위로 놓인 보라색 다리를 건너 보라색 지붕을 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바다에 인접한 산책로를 따라 사시사철 섬 곳곳에 피고 지는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다. 본래 반월·박지도가 퍼플섬이 된 이유도 섬에서 기르던 보라색 도라지꽃이 섬을 보라색으로 보이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라색 다리 건너 그 섬에 가고 싶다. 바다 위 퍼플 다리를 건너가노라란 비단빛바람에 지친 몸과 마음에 평화가 올 것만 같다.

社說

SOC 투자 서남권 확대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요즘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지난달 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물류교통의 중심이 동남권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남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공항·항만·철도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돼, 물류 경쟁력이 서서히 후퇴하는 것은 물론 국토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SOC 투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서울-부산을 축으로 진행돼 왔다. 일제는 수탈을 목적으로 투자했다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권까지 동부 축에 SOC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여전히 서남권의 소외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항·김해공항이 있는 동남권에 가덕도 신공항이 더해지면 동남권 메가시티가 현실화되면서, 물류 축이 동남권과 수도권으로 양분돼 서남권은 동남권의 하위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다시 확인된 기초의원들의 이권 쟁기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기초의원인 구청과 수의계약을 통해 이권을 쟁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엇그제 복구의회 백순선(나 선거구·무소속)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등 8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 의원은 법을 어기고 배우자 명의의 인쇄·판촉물 제작 업체를 통해 모두 11건(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복구청과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 의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로 타 업체의 견적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적용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대목은 위법을 자행한 공무원들의 행태다. 한 공무원은 “(백 의원이) 의회에서 자료를 과다하게 요구해 직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면서 “구정 소관 업무를 감시하는 의원인데 말을 하지 않아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의원들의 일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수사 결과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해당 기초의원은 행정사 무감사, 오본 발언, 자유 질의 등 자치단체 감시와 견제를 위한 의회 시스템을 공무원이나 자치단체 길들이기에 악용했다. 공무원들이 비록 기초의원의 위세와 갑질에 눌렸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점도 개탄스럽다. 결국 의회와 자치단체가 부패의 공동정범이었던 셈이다.

사법 당국은 백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위법 행태도 철저히 파헤쳐 의회와 자치단체 간 부패의 연대를 끊어 내야 한다. 복구의회와 구청 역시 빼어난 자성과 함께 의회와 자치단체 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투기는 정부를 괴롭히는 골칫거리였다. 조선시대에도 땅 투기를 다스리고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국정 과제였다. 성종실록에는 성종 12년(1481년) 1월 “재상들이 서로 다뤄 두 채씩 집을 짓기 때문에 서민들은 성 안에도 살 수 없다”며 임금이 대신들을 질책하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관리들은 집을 여러 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경우 서민의 집에 전세 계약을 통해 들어왔다가 집주인을 내쫓는 경우마저 있었다.

명종실록(명종 20년, 1565년)에도 대서한이영의정 윤원형을 맹비난하며 상소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하늘 높은 저택을 10여 채나 이어 짓고, 해변의 간척지와 내륙의 기름진 전답을 사사로운 점유하니, 어찌 지벌(地癖)이 아니겠습니까?” 속종실록에는 이조참판을 지낸 ‘이상’이라는 양반이 보이는데, 그는 “꽃땀을 동원해 자기·협박으로 남의 땅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범이었다. 먼저 타깃을 정한 뒤 예쁜 여종을 시켜 땅 주인과 정을 통하게 하고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땅을 빼앗았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빼앗는 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속종실록은 이상을 전지벌(田地癖)을 가진 자라며 비난했다. 전지벌은 남의 땅을 탐내는 버릇을 뜻한다.

이런 판이니 힘없는 백성들이 집을 빼앗기는 일은 더욱 늘어만 갔다. 영조는 왕이 되기 전 궁 밖에 살면서 이런 광경을 수시로 목격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1724년 ‘여역집 탈취 금지령’이라는 법을 만든다.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여역집을 빼앗지 못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 아예 매매와 전세조차 금지시키는 이중 장치까지 마련했다. 영조는 1754년, 이 법을 어긴 20명을 유배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격 며 상소를 올린 기록이 보인다. “하늘 높은 저택을 10여 채나 이어 짓고, 해변의 간척지와 내륙의 기름진 전답을 사사로운 점유하니, 어찌 지벌(地癖)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한 박탈감을 안긴 부동산 투기자들에게 대해서는 일반백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재희총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